



홍탕물 칼칼 시간당 70mm에 이르는 기습폭우가 쏟아진 7일 광주 지역에서 도로·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남구 시산동 인도가 유실돼 홍탕물이 흘러넘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금호, 석유화학 중심 지배구조 단일화

양대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해 온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중심의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7일 지금까지는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중심의 양대 지배구조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호석화를 단일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석유화학부문 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의 최근 금호석화 지분 매입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도 이날 공시를 통해 박상구 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자(오너 일가) 지분이 지난달 26일 40.69%에서 이달 7일 46.59%로 5.9%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들측은 양대 지주회사에서 금호석화 중심의 단일 지주회사로 전환한 데 대해 대우건설 및 기타 자회사 매

각 등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금호산업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 커 이원화 된 지배구조를 금호석화로 단일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들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매각하면 지주회사 자산 50% 이상을 계열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주사 요건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지주회사는 금호석화가 되기 때문에 지주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박찬구 회장 부자가 금호석화 지분을 늘렸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은 대차대조표상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모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대우건설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등을 팔 경우 자회사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크게 떨어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00mm 물폭탄' 광주·전남 피해 속출

농경지 6,500ha·주택 480동 침수·도로 곳곳 잠겨 배수로 빠져 2명 사망...신안 자은도 주민 한때 고립

신안군 자은도에 시간당 강우량이 최고 108mm에 이르는 장대비가 내리는 등 7일 하루 광주·전남 지역에 평균 14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농경지 6천 500여ha와 430여 동의 주택이 물에 잠긴 데 이어 항공기와 여객선까지 결항하는 등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광주시와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내린 비로 광주에서는 195mm, 전남 지역에서는 평균 140.6mm의 강우량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예년 이맘때의 평균 강우량이 10mm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폭우다.

가장 많은 311.5mm의 비가 내린 나주에서는 농경지 3천ha가 물에 잠겼으며, 함평과 신안에서도 각각 1천 482ha와 1천438ha가 침수되는 등 전남지역 전체적으로 6천547ha의 농경

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나주 공산면에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신 모(62·여)씨가 배수구 비닐을 치우려다 급류에 실족, 변을 당했고 오후 7시께 영광군 열산면 논 배수로에서 임 모(7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라 나주 171동, 신안 120동, 화순 108동 등 모두 436동의 주택이 물에 잠긴 상태다.

시간당 강우량이 역대 최고수준인 108mm를 기록, 피해가 가장 큰 신안군 자은면에서는 11가구에서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에서는 이날 오전 8시께 나주시 노안터널 하행선 입구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오전 11시까지 차량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또 광주~목포 간 국도 1호선 역시 나주 보산동 구간의 비탈면이 무너지고, 3곳의 시내구간이 침수되는 등 도

로 곳곳이 물에 잠겨 차량 소통에 차질을 빚었다.

이와 함께 무안~김포, 김포~무안 간 항공기가 1편씩 결항했으며, 여수~김포 간 6편 그리고 김포~여수 간 7편의 항공기도 결항했다. 해상교통의 경우 목포 해상은 오전 10시부터 부분통제에 들어갔으며, 여수와 안도 해상을 운행하는 여객선은 오후 4시 현재 전면 통제된 상태다.

광주시에서는 동구 태봉마을 등 57세대, 충금지하상가 등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농경지 10곳 38ha가 물에 잠겼다. 또 도로 59곳이 침수돼 통행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내린 비로 광주시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수원지를 비롯 주암댐과 장흥댐 등의 저수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광주·전남지역을 덮쳤던 가뭄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복수원지에는 이날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1천500만t가량의 물

광주	195.0	장흥	168.5
목포	128.0	강진	149.5
여수	74.5	해남	112.5
순천	250.0	영암	123.0
나주	311.5	무안	223.0
광양	240.5	함평	193.0
담양	148.5	영광	105.5
곡성	140.5	장성	149.0
구례	120.5	완도	86.5
고흥	96.0	진도	116.0
보성	190.5	신안	300.0
화순	270.0	(자은도)	

이 유입돼 저수율이 전날 13.6%에서 하룻만에 29.5%로 대폭 상승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까지 동복수원지에 유입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 저수율은 4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이날 말에 실시하려 검토해온 광주지역 제1급수 계획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주암댐의 경우 이날 저수율은 22.5%를 기록, 지난달 30일 15%에 비해 7.5%가 늘었다. 또, 장흥댐과 섬진강댐의 저수율도 각각 33.1%와 6%로, 5일 전에 비해서 1~4%가 증가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맛비 얼마나 더

오늘 최고 60mm

11일까지 계속

7일 새벽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장맛비는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낮 동안 일시적으로 비가 그쳤다가 밤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7일 예보했다. 이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60mm.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인 11일까지 이어지겠으며,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는 9~10일은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게이트' 수사 이인규 중수부장 사표

검찰 수뇌부 다음주 인사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대검찰청 이인규(51) 중수수부장(검사장)이 7일 오전 사표를 냈다.

이 중수부장은 이날 오전 문성우 대검 차장에게 "검사로서 소임을 다했다.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됐다"며 사표를 낸 뒤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기회 및 특별수사팀인 그는 올해 대검 중수부장에 발탁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대형 돌발변수를 만난 이후 거취를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사장급 이상 검찰 수뇌부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3일)가 끝나는데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사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여름휴대 패키지

취미/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9

대한민국 보청기의 지존성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 70여년 보청기 역사만큼의 신뢰성과, 보청기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청기 업체로서, 세기보청기 70여년 보청기 역사만큼의 신뢰성

대한민국 보청기 지존성

세기스타·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 대표점

1588-8419 / 062-222-0100

www.segibot.com

1588-8419 / 062-222-0100

062-222-0100